

미 국

일괄민간과학법안(H.R.2045)의 진행과정과 전망

미 공화당은 막대한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7년 동안 민간 과학기술 투자예산을 33% 삭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1996회계연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

일례로 국가표준기술원(NIST)의 첨단기술 프로그램(ATP)의 경우 하원에서는 예산단절, 상원에서는 행정부 제안예산의 5%에 해당하는 25백만 달러로 의결하여 향후 상하 양원합동회의에서의 결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며, 국방부의 기술재투자 사업(TRP)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자세한 내용은 <표 1> 참고).

한편, 이와는 별도로 민간 과학연구개발 투자예산을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이 지난 10월 12일 미 하원을 통과하여 상원에 회부됨으로써 동법안의 주요내용과 의도 그리고 향후 전개과정에 대한 논의가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이다. 동 법안은 민간 과학연구개발 투자의 우선순위를 국방예산의 수준으로 높이고자 하는 목적과 민간 과학연구개발 투자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이중적 의미를 가진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H.R.2045)의 제안의의 및 진행과정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개과정을 전망하고자 한다.

HR. 2045의 제안의의와 진행과정

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the Omnibus Civi-

lian Science Authorization Act of 1995)은 미 하원 과학위원회 의장인 로버트 워커(Robert Walker: 공화당)의원이 제안한 것이다. 동 법안은 과학재단(NSF), 국가항공우주국(NASA), 에너지부(DOE), 국가표준기술원(NIST), 국가해양대기청(NOAA), 환경보호청(EPA), 소방청(USFA) 등 7개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민간 과학활동을 하나로 묶어 일괄법안화한 것이다.

Walker 의원에 따르면, 동 법안은 과학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국방부문의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이며, 민간 과학연구개발 노력을 패키지화 함으로써 국가의 과학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미국의 과학조직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속성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간 과학연구개발은 국가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잠재력을 가진 수 십억 달러의 의사결정이므로 이를 하나의 법안으로 결합하는 것은 의회가 완전한 형태로 민간 과학연구개발을 고려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이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뛰어난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즉, 7개의 정부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각각의 민간 과학연구개발 투자예산을 하나의 우산하에 결합하여 의회가 더욱 완전한 모습으로 민간 과학연구개발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 동 법안의 취지인 것이다. 동 법안은 하원에서 248대 161로 통과되어 상원에 회부되었다.

미 국

<표 1> FY 1996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양원의 예산조정액 (단위: 백만 달러)

	FY 1995 실행	FY 1996 요구	FY 1996 하원	FY 1996 상원	FY 1996 상하합동
Department of Commerce					
-Technology Administration	8	14	5	5	
-NIST Advanced Technology Program	341	491	0	25	
-NIST Manuf. Extension Partnership	74	147	81	51	
-NIST Quality Award	3	5	(3)	(3)	
-NIST Research (STRS & WCF)	248	311	263	223	
-NIST Construction (CRF)	35	70	60	24	
*NIST Total	(701)	(1,023)	(404)	(323)	
-NOAA:Sustainable Fisheries	269	316	251	289	
-NOAA:LANDSAT	0	12	0	10	
-NOAA:Climate Change	57	90	52	63	
-NOAA:HPCC	6	16	7	7	
-NOAA:GLOBE	7	7	0	0	
-NTIA:Nat. Info. Infra. Grants	42	100	40	0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Space Station	2,113	2,115	2,115	2,115	
-Mission to Planet Earth	1,340	1,341	1,003	1,281	
-Aeronautics Initiative	347	434	434	434	
-High Performance Computing	76	75	40	no detail yet(n.d.)	
-New Milenium Initiative	392	495	495	n.d.	
-PNGV/Clean Car	5	7	0	n.d.	
National Science Foundation					
-Research and Education	2,851	3,053	2,853	2,893	
-Equipment and Facilities	244	170	170	170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nvironmental Technology Initiative (Contract funding Only)	68	120	0	20	
Department of Energy					
-Solar & Renewable Energy R&D	388	423	266	284	
-Conservation R&D	512	630	403	408	
-Climate Change Action Plan	101	187	85	85	
-Cooperative R&D Agreements(CRADAs)	274	291	25	254	
-Linear Accelerator "B-Factory"	44	52	52	52	
-Partnership for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168	251	123	178	
-Science Facilities Initiative	0	100	100	100	
-Alternative Fuel Vehicles	53	56	28	27	
-Federal Facility Energy Efficiency	24	26	17	19	
Deduction for overlap	(346)	(520)	(253)	(309)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FHWA Intelligent Trans. Systems	228	352	184	230	
-FAA Research	259	268	143	216	
-FRA Next Generation High Speed Rail	25	35	15	25	
Department of Interior					
-USGS	572	586	687	578	
-National Biological Service	152	172	0	146	
-Bureau of Mines	152	133	87	133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11,239	11,779	11,939	mark-up	
Department of Defense					
-Technology Reinvestment Project	208	500	0	238	
-SIEMATECH	89	90	0	90	
-Nunn-Lugar	400	371	200	325	
TOTAL	23,068	25,170	21,970	na	

미 국

그러나 동 법안에 대한 민주당측의 태도는 매우 비판적이다. 하원에서 대체안을 제안하였던 민주당의 조지 브라운(George Brown) 의원은 동 법안이 향후 7년 동안 민간 과학기술 투자예산을 33% 삭감하기 위한 공화당의 첫 걸음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브라운 의원은 예산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나 그것이 미래를 위한 투자인 과학기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참모에 따르면, 민간 과학연구개발 투자예산의 일괄위임이라는 접근방법은 각 기관의 과학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는 표준 이하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기관에 대한 비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간의 비교조차도 매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의 하원 과학위원회의 한 측근은 일괄법안이 과학부문을 국방부문과 같은 위치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서 위커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오히려 일괄법안은 궁극적으로 세출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연구개발 예산에 관한 하원의 위치를 높이는 동시에, 7개의 기관으로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원 과학위원회가 가지지 못했던 심의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의 주요내용

동 법안은 1996 회계년도의 총지출로 219억 달러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1995 회계년도보다는 21억 달러가 부족하고, 클린턴 행정부가 7개 기관을 통해 요청한 금액보다 29억 달러가 적은 액수이다.

반면, 동 법안에서는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이 7개 기관의 세출액에 비해 1%가 높은 6.67백만 달러에서 6.74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NSF의 연구보조금, 에너지부의 일반 과학연구(general science and research)와 기초에너지 및 생명과학(basic energy and life science), 미 항공우주국의 우주과학(space science)과 생명 및 미세중력과학(life and microgravity sciences), 그리고 국가표준기술원의 핵심연구실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기초과학연구예산이 1% 증가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하원 과학위원회의 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으로 이는 1995 회계년도에 비해 1.3% 감소했고, 클린턴정부가 요구한 수준보다 5.8%나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 법안은 거의 수정되지 않고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하원에서 이루어진 소규모의 수정은 위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화석에너지와 에너지 보전연구개발을 위한 1996 회계년도 예산 위임을 내부세출위원회 보고서에서 제시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동 수정안에서는 화석에너지와 에너지 연구개발을 위한 1997 회계년도의 예산수준을 상당히 감소시킬 것을 위임하고 있다. 한편, 브라운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으나 부결된 대체안은 중요한 과학기술 프로그램을 위한 충분한 수준의 자금을 제공하고, 정부-산업기술 공동체휴를 포함하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간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동 대체안에는 국가표준기술원(NIST)의 첨단기술 프로그램(ATP), 환경보호청(EPA)와 국가해양대기청(NOAA)의 장기 지구변화연구, 그리고 과학재단(NSF)의 사회과학 부문에 대한 예산재개를 위한 제안이 포함되었다.

미 국

향후 전망

동 법안을 과학부의 신설을 위한 첫 걸음으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동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괄민간과학위임법안은 과학에 대한 우선순위의 부여와 일괄적 예산절감의 제도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고 있으나, 7개 기관의 민간 과학연구개발 활동의 성격이 서로 달라 일괄적으로 패키징하기 어렵다는 점과 예산과정에서 하원의 비중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점에서 반대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대여론은 상원에서 동 법안을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는 요인이 될 것이고, 현재 상원의 에너지 및 천연자원위원회의 에너지 연구개발 소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페트 도메니치(Pete Domenici) 의원은 동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동 법안과 관련된 상원의 상무, 과학, 교통위원회, 환경 및 공공사업 위원회, 그리고 노동과 인력지원위

원회 등도 본 법안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7개 기관에 위임된 예산을 하나로 묶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동 법안이 과학기술에 대해 지난 50년간 흔들리지 않았던 양당의 참여형태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면서 동 법안이 7개의 개별 기관에 위임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동 법안이 향후 과학부의 신설이나 민간 과학연구개발 부문에 대한 우선순위의 부여, 혹은 일괄적 예산삭감으로 이어질 것인가 등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하여도 공화당 주도의 의회하에서 클린턴 정부의 민간 과학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은 수 많은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李長載

〈정책동향팀, 선임연구원〉